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추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44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추가(안 제1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19.

다. 회 부 일 : 2025.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Ⅲ. 검토의견

1.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추가(안 제1조)

현행	개정안
○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목적(§1) -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목적(§1) -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u>지역균형개발</u>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에 지역균형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순이동자 수¹⁾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순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한 뒤 2024년까지 매년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호남권과 영남권은 2014년 이후 매년 인구의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4년~2024년)]

(단위: 천 명)

권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대비 증감
수도권	-21	-33	-1	16	60	83	88	56	37	47	45	-2
중부권	39	49	41	42	28	11	12	24	34	18	16	-1
호남권	-6	-8	-16	-18	-28	-25	-24	-16	-13	-15	-18	-3
영남권	-23	-22	-40	-54	-69	-71	-78	-67	-61	-47	-40	7

주)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중부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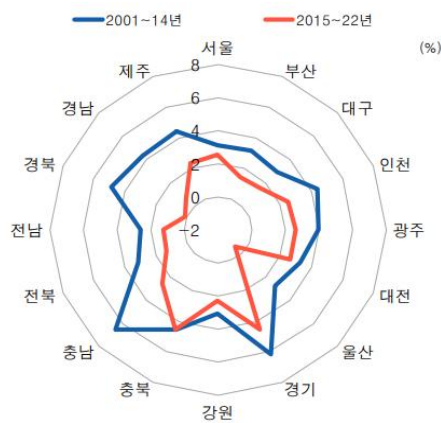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자료: 통계청, '2024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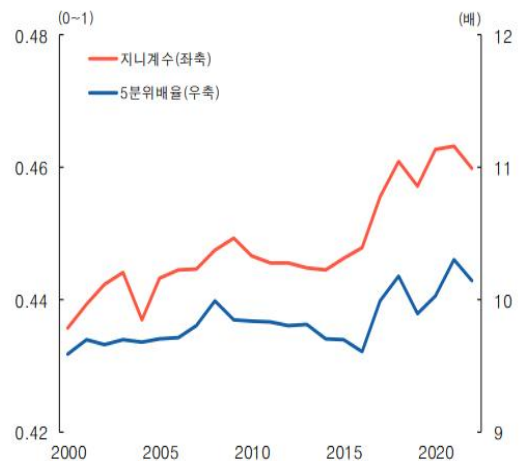
1) 순이동자수는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값으로 계산함. 순이동자수가 양(+)의 값을 순 인구유입을 의미하고, 순이동자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순 인구유출을 의미함.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지역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²⁾ 지역내 총생산(GRDP)을 2001년~2014년(전국 평균 4.2%)과 2015~2022년(전국 평균 2.5%) 두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서울(3.1% → 2.5%)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경기(6.1%→ 4.5%) 및 충북(4.5% → 4.5%) 지역은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소폭 하락하는데 그친 반면, 울산(2.8% → -0.6%), 충남(6.6%→ 2.7%), 경북(4.8% → 0.1%), 경남(4.3% →0.6%) 등 비수도권의 제조업 특화 지역들은 3%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 지역 간 GRDP 불균형도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³⁾

[연평균 GRDP 성장률]



[지역간 GRDP 불균형]



자료: 한국은행,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2024.3.

2) 한국은행,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2024.3.

3) 지니계수: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이 심함

5분위배율(배): 상위 20%지역(16개 지자체중 1~3위)의 평균 생산액/하위 20%지역(14~16위)의 평균 생산액

이와 더불어 수도권 자본(자산)스톡 집중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국가 전체 자본스톡의 46%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면적 1km² 당 자본스톡이 2,434억원인데 비해 그 외 지역은 383억원에 그치고 있음. 또한 지역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1인당 인프라 규모도 비수도권 대도시⁴⁾는 2,400만원으로 수도권 대도시(2,700만원)에 비해 낮음 수준임.⁵⁾

이에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근거 법률의 목적 조항에 기존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더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격차 완화 및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임.

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투자 및 보증 등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참고로, 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추가하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 3건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

4) 수도권 대도시는 서울, 인천이며 그 외 지역 대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의미함.

5)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4.6.19

[관련 법률안 회부 현황]

연번	구분	제안자	회부일 (회부 상임위)	내용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8)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 5. 20. (정무위)	법률 목적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등에 지역균형발전 등 추가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3)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 5. 20. (정무위)	
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2)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 5. 20. (정무위)	

다만, 수출입은행은 본래 수출, 해외 투자, 해외자원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 경제협력’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⁶⁾이라는 수출입은행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6) OECD의 공적수출신용협약에 근거하여 직접 대출, 보험, 보증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

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은 수출입·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 지원 기관인 바, 국내 지역균형개발을 기관 운영의 주목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수출, 수입, 해외투자 등에 기반하여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가능한 바, 지역별 수출·내수 등 중점 육성산업 분야가 다르고 대외거래 규모가 상이하여 타 대내정책금융기관과 달리 지역별 균형을 주목적으로 하여 여신지원방향 수립 및 운용이 곤란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 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u>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u>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u> ----- -----.

문의처

02)6788-5155